



본회 정기총회 성료

- 국내 양육 경쟁력 배양 위한 다각적 사업계획 마련 -

본회는 지난 1월30일 경동프라자 대회의실에서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본회는 양육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및 학계의 협조를 얻어 '양육산업 장기발전 방안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산 양육산물 고급화 및 차별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축산물 가공 처리법상 사슴 자가도축 허용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사슴 및 양육산물 수입검역 제도 강화, 녹용 수입 통관제도 개선, 수입녹용 유통 및 사후관리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녹용 안정판매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절편녹용 조기수입을 강력 저지하는 한편, 국산 동결진공건조 녹용 한약규격품 공급을 본격 추진하고 국산녹용 품질보

증제를 도입, 외산녹용과의 가격경쟁 취약부분을 상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양육자조금을 활용하여 양육산물에 대한 대중매체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슴산업 축제'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을 유도기로 했다.

본회는 이날 총회에서 임원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등 정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2001년도 수지결산을 승인하고 2억8천1백80만원의 2002년도 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양육산업화 매진 △경쟁력 있는 공급기반 조성 △품질관리 및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 △국내시장 유지 및 해외시장 개척 △강력한 생산자단체 면모 확립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본회 김은성 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1만 5천여 양육인의 힘을 결집, 강력한 생산자 단체의 틀을 갖추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고 밝힌 한편, "양육자조금 제도 정착, 국산녹용 차별화 및 품질보증제 실시, 양육경영기술 교육 정례화, 효율적인 대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양육업이 경쟁력 있는 소득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양육**

